

사랑터

연중 제14주일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제1693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미사 2020년 7월 5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345-2357(FAX)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8:30특전 (주일) 6:30,10:30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7월 5일 (연중 제14주일)	7월12일 (연중 제15주일)	
새벽 미사	해 설	차화선 스텔라	변은숙 M.막달레나
	1독서	박동주 F.로마나	김관곤 오네시모
	2독서	이성희 마리아	황복자 마리아
교중 미사	해 설	김재실 에바리스또	김광순 카타리나
	1독서	김승원 마오로	신성철 안토니오
	2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박도연 보나

화 답 송

주 님 - 제 목 숨 - 당 신 손 에 맡 기 나 이 다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7월 6일(월)	7월 7일(화)	7월 8일(수)	7월 9일(목)	7월10일(금)
해설	황숙자 베로니카	이상희 로사	손 요안나	이정에 실비아	임순자 안나
독서	이정남 안젤라메리치	성실하신 모후	천상의 모후	인자하신 동정녀	순결하신 모후

7월 5일 (연중 제14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성가정회, 자모회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구역분과, 청소년분과
	미사안내	전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6/29(월)-7/ 5(일)	3구역 부평,대창,휴먼시아1단지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박안홍(시몬) 후 :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7월12일 (연중 제15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성가정회, 자모회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구세주의 모후 Pr.
	미사안내	구역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7/ 6(월)-7/12(일)	3구역 장복반
	차량봉사(좌곤리)	최효찬(프란치스코)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주양원(요셉) 후 :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 사목협의회 7/5일 미사 후
 -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 7/4일(토) 특전미사
 - 8명의 어린이가 첫 영성체를 받습니다.
- 레지오 아치에스(봉헌사열식)
 - 일 시 : 2020.7.7.(화)19:30~
 - 장 소 : 성모상 앞(우천시 성전안)
 - 대 상 : 레지오 행동단원/협조단원
 - 준비물 : 목주, 뗏세라(레지오수첩), 성가책, 단정한 복장
 - 아치에스 후 성모상 앞에서 미사
- 어린이 미사를 시작합니다.
 - 일시: 7월11일(토) 오후4시
 - 대상: 유치부~6학년 어린이와 부모들
- 대산공소 미사 7/12일 14시
 - 동행: 자비로운 모후 Pr.(성당13:30분 출발)
- 공원묘지 풀베기
 - 일시: 7월12일(일) 오후1시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 전원 마스크 착용
 - 성당에 출입 시 손 소독 및 발열 체크
 - 미사 전 출입자 명단 작성 필수
 - 미사 시 1-2m 거리두기(단, 가족은 함께 앉기 가능), 단체 음료와 음식 나눔 중지
 - 미사 참석자 작성 및 발열체크를 위해 미사 20분 전까지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석 의무 면제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지역을 다녀오신 분, 발열자,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이상자
 - 위에 해당되는 신자는 공소예절을 하거나, 방송미사, 목주기도, 선행 등으로 대신

교무금 : 6월27일(토) - 7월 3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이재권(요셉)	6	이세원(다두)	6	차일순(마리아)	6
김가영(아나다시아)	6	이완식(안드레아)	1-12	이현재(요셉)	12-6
전삼택(마르첼로)	5-6	이수성(베드로)	3	김경순(올리아나)	7
엄복순(아셀라)	6	김양금(헬레나)	7	이순덕(안나)	6-7
이삼순(올리아)	6-7	최인석(다니엘)	6-7	오중두(베드로)	3-5
김재실(에바리스또)	6	이점순(미카엘라)	6-7	정규식(요셉)	6
양재연(젼마)	6	김병찬(베드로)	1-4	구상철(미카엘)	8
이재동(토마스)	6	송중식(올리아노)	6	조윤성(디모테오)	6
장희주(아가다)	6	노현식(프란치스코)	4	지윤자(마틸다)	7
허명철(스테파노)	7	지영갑(안드레아)	7	노정옥(카타리나)	7
조순순(안나)	7-8	이용범(프란치스코)	7-12	김중금(글라라)	7
서정아(프란치스카)	7	신강순(도미니코)	7	한성자(테레사)	3-4
김민희(요안나 F.)	7	김춘자(요안나)	6	김영자(프란치스카)	7
전정부(아우구스티노)	7	신지연(마리스텔라)	7	손혜정(소화테레사)	10
조양규(미카엘)	7	백현국(사도요한)	6	박상옥(안토니오)	6
손미정(수산나)	7	이진경(방지거)	6	서성혜(발렌티나)	6
김봉선(안나)	7				
교구사업모금 : 6월27일(토) - 7월 3일(금)					
이세원(다두)	6	이삼순(올리아)	6-7	양재연(젼마)	6
허명철(스테파노)	7	지영갑(안드레아)	7	김중금(글라라)	7
서정아(프란치스카)	7	신강순(도미니코)	7		
■ 용원성당 성전건립 기금 이상을 바오로(완납) -기간: ~ 2020년 4월 30일 -분담금 57,700,000원(교무금 4개월분 납부) -봉헌 누계: 48,238,000원(203세대) -모든 세대 납부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여자수 : 331 명			
		교무금	4,446,000원		
		주일 현금	1,744,000원		
		교구사업모금	157,500원		
		성소후원금	126,000원		
		2차 현금	672,800원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구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낙원에서 죄를 지어 쫓겨났다. 쫓겨난 인간은 다시 하느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 하나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백 길 되는 계곡에 하느님께서 다리를 놓아 주시고자 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드님을 보내 주셨다. 외아드님인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힘드시오 그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과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느님 나라엔 영생이 있으며 슬픔과 괴로움, 죽음도 없는 행복만이 가득하다. 하느님을 직접 뵈옵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수도자의 행복

그 날은 수녀원에서 일 년에 한 번 있는 거름 푸는 날이었다. 수녀원에서는 음식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일 년 동안 썩혀서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당시 청원자였던 우리들은 입회 전엔 구정물에 손 한번 담가보지 않았던 터라 마음속엔 기대와 함께 주저함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추위와 구정물을 막아보고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가지로 칭칭 동여매고 나온 우리들은 이내 기도와 찬미 속에서 두려움을 잊어갔고, 웃고 노래하며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 산 같던 거름더미도 한나절 만에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군에서 초코파이와 사발면이 인기 만점이라면 수녀원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공동 작업을 마치고 모여 앉아 먹는 즉석 라면, 그것도 초겨울 매운바람 속에서 자매들의 웃음소리를 반찬 삼아 먹는 라면의 맛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소중한 추억이다. 그렇게 기분 좋게 작업을 마치고 나니 한 가지 남은 문제가 뒤처리였다. 내년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장비를 깨끗하게 정리해두어야 했는데 온통 거름범벅이 된 물건들을 실내로 들고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세탁장 옆에 자리를 잡고 맨손에 달랑 칫솔 하나씩 들고 장화를 씻어 나갔다.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손은 조금씩 얼어가고 대야의 물은 금방 더러워져서 다시 수도 없이 물을 길어 와야 했는데, 말없이 신발을 씻어가던 우리들의 입에서 조용히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배어 있었다. 뒤이어 나는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여 이런 말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행복하죠?” 그 말은 내가 태어나서 가슴 가득 던진 첫 번째 사랑 고백이 아니었던가 싶다.